

광주회생법원 공식 출범...“파산, 끝 아닌 새출발”

김성주 초대 법원장...광주·전남·전북·제주 관할 서남권 도산 전담체계 완성...전담 법관 6명 배치

광주회생법원이 3일 개원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 회생·파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재판부는 김성주(사법연수원 26기) 법원장을 비롯해 김용신 선임부장판사(36기) 등 판사 6명으로 구성됐다. 사무국은 하순원 사무국장(행정고시 16기), 김강곤 총무과장(22기), 하정환 파산개인회생과장(21기) 등이 맡는다.

이날 개원식에는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 기우중 법원행정처 차장과 민형배, 정진욱, 안도걸, 김기표 국회의원, 고광안 광주시 행정부시장, 양진석 광주경제자유구역 협회 회장 등 주요 내빈들이 참석해 출범을 축하했다.

앞서 사법부는 2017년 서울회생법원을 시작으로 2023년 수원·부산에 회생법원을 설치했으며, 올해 광주와 대구, 대전까지 확대하며 전국 권역별 전문화 체계를 구축했다.

광주회생법원은 광주, 전남·전북, 제주

지역의 법인 회생·파산과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재판부는 김성주(사법연수원 26기) 법원장을 비롯해 김용신 선임부장판사(36기) 등 판사 6명으로 구성됐다. 사무국은 하순원 사무국장(행정고시 16기), 김강곤 총무과장(22기), 하정환 파산개인회생과장(21기) 등이 맡는다.

이날 개원식에는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 기우중 법원행정처 차장과 민형배, 정진욱, 안도걸, 김기표 국회의원, 고광안 광주시 행정부시장, 양진석 광주경제자유구역 협회 회장 등 주요 내빈들이 참석해 출범을 축하했다.

앞서 사법부는 2017년 서울회생법원을 시작으로 2023년 수원·부산에 회생법원을 설치했으며, 올해 광주와 대구, 대전까지 확대하며 전국 권역별 전문화 체계를 구축했다.

광주회생법원은 광주, 전남·전북, 제주



3일 광주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광주회생법원 개원식에 참석한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 김성주 초대 법원장, 기우중 법원행정처 차장과 민형배, 정진욱, 안도걸, 김기표 국회의원, 고광안 광주시 행정부시장, 양진석 광주경제자유구역 협회 회장 등 주요 내빈들이 제막 줄을 당기며 축하하고 있다.

파산 제1부 소속 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법관 및 사법보좌관에 대한 제척·기피 재판은 파산 제1부가 담당한다. 법인 회생·파산 사건의 조사확정재판 및 부인의 청구 사건은 본안 재판부 주심 판사가 맡고, 일반회생 및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의 조사확정재판 및 부인의 청구 사건은 각 본안 재판장이 담당한다. 민사단독 사건과 신청단독 사건은 재경

합사건으로 처리된다. 김 법원장은 “도산 사범은 경제적 좌절의 끝에 선 분들에게 다시 시작할 용기를 북돋우고, 한계 상황에 직면한 경제 주체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경제적 치유의 과정”이라며 “광주회생법원은 실패의 아픔을 겪은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재기의 전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 “서남권 지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적으로 투입해 장기적인 전문성 축적과 사법 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루겠다”며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의 성공적인 준칙과 선례를 지역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개

오늘의 날씨

맑음	06:59	달림	19:24
맑음	18:30	달림	07:13



광주	☀️	2~13
목포	☀️	0~9
여수	☀️	4~12
순천	☀️	2~14
구례	☀️	1~15
광주	☀️	1~12
신도	☀️	3~14
흑산도	☀️	4~9
고흥	☀️	2~14
진도	☀️	3~10

목포	밀물(고)	02:39 / 15:13
	썰물(저)	07:56 / 20:22
여수	밀물(고)	09:55 / 22:09
	썰물(저)	03:32 / 15:33

농어촌공 전남, 농업기반 정비에 4282억 투입

기후위기 대응...저수지·양배수장 정비로 재해 예방

이상기후로 인한 극한 가뭄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 전남 지역본부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예산을 투입하며 선제적 재해 대응에 나선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3일 “농업 재해 예방과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농업기반 정비사업 예산 4282억원을 확보하고 1분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 강수량은 나주 2149mm, 광주 1978mm로 연평균 강수량(1326mm) 대비 각각 62%, 49% 증가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극한 호우를 기록했다. 반면 2022년에는 평년의 64.6% 수준의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는 등 기후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전남지역본부는 농경지 침수 예방과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생산기반 정비사업(73지구)에 1366억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는 △배수개선 905억원 △농촌용수 사업 217억원 △경지정리 등 244억원이 반영됐다. 또 노후 저수지와 양·배수장 성능을 강화하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434억원을 편성해 재해 대응 능력을 높인다.

미래형 농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신규 사업도 추진한다. 총사업비 3696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확보해 배수개선 13지구(1196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73지구(1538억원), 농촌용수 개발 2지구(435억원) 등 90개 지구에서 사업을 진행한다.

임정호 기자 jih4415@gwangnam.co.kr



버블쇼 공연 관람하는 초등학교 신입생들 3일 오전 광주 동구 계림초등학교에서 열린 입학식에서 신입생들이 버블쇼 공연을 관람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지역 교육행정직 423명 선발...마지막 분리 채용

전년 대비 광주 4명 감소·전남 120명 증가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광주·전남 교육행정 통합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분리 채용’에 나선다. 양 교육청은 3월 2026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각각 공고하고, 일반행정직 등 총 423명(광주 66명·전남 357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합격자들은 행정통합 이후에도 근무지구 지역 제한이 유지된다.

광주시교육청은 총 66명을 선발한다. 교육행정 61명(일반 54명·장애인 3명·

저소득층 2명·상업고 출신 2명), 시설행정 5명(토목 2명·전기 2명·기계 1명)이다. 이는 지난해 70명보다 4명 줄어든 규모다.

전남도교육청은 357명을 선발한다. 직렬별로는 교육행정 266명, 전산 13명, 사서 9명, 보건 3명, 식품위생 2명, 기록관리 4명, 공업(기계) 2명, 공업(전기) 3명, 조리 24명, 시설관리 15명, 운전 16명 등이다. 전남 소재 상업고 졸업(예정)자 5명을 인제 수습직원(교육행정)으로

처음 선발하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3명(전기 1명·조리 2명)도 별도 선발한다. 사회적 약자 전형도 확대했다. 장애인 21명(교육행정 19명·전산 1명·사서 1명), 저소득층 5명(교육행정), 국가유공자 4명(조리 2명·운전 2명)을 구분 모집한다.

전남의 올해 선발 규모는 최근 5년 내 최대이자 전년 대비 120명 증가한 수치다. 원서 접수는 양 교육청 모두 4월 13~17일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6월20일, 최종 합격자는 8월6일 발표된다.

김안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외국인 노동자 사망’ 영암 조선소 수사·조업 중지

경찰과 노동 당국이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 중 숨진 전남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중형조선소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전남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은 3일 캄보디아 국적 A씨(35)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영암군 대불산단 내 한 조선소 공장에서 1t 무게의 선박 블록에 깔려 숨졌다. 당시 공장에서는 선박

블록을 크레인으로 옮기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A씨는 블록이 전도돼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선소 관계자를 상대로 무상과 실지사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 당국도 공장 조업을 중지시키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임영진 기자 looks@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

마약 투약한 불법체류자 구속

마약 투약한 불법체류자 구속 3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는 지난해 5월15일 충북 지역에서 신종 마약으로 분류되는 ‘러쉬’ 1병을 매수한 뒤, 같은 날 오후 10시경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체류 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마약 유통망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의 신원을 특정했고, 지난달 28일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구매 경위와 투약 횟수 등을 확인하는 한편, 해당 마약의 공급원과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임영진 기자

남구, AI·모빌리티 행정 강화

광주 남구가 국경과제 전략적 대응과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에 들어갔다. 3일 남구에 따르면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3건을 입법 예고했다. 개편안은 2026년도 상반기 행정기구·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고, 전결사무를 조정해 행정사무의 권한·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우선 AI·미래 모빌리티·데이터 등 미래산업 분야를 전담하는 ‘미래산업전략과’가 신설된다. 미래산업전략과는 미래전략팀, AI데이터팀으로 나눠지며 신산업 육성 전략 수립·구축, AI·미래차 부품산업 등 신산업 육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 AI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관리 업무 등을 맡는다. 이에 따라 경제재정국의 직제순은 민생경제과, 회계과, 일자리정책과, 미래산업전략과, 세무1과, 세무2과 순으로 조정된다.

공무원 정원도 늘어난다. 집행기관의 정원을 918명에서 928명으로 10명(일반직) 증원된다.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현행 26명을 유지한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녹는 땅 위험”...광주·전남 해빙기 사고 경보

최근 3년 115건·인명피해 116명...산악사고 다수 급경사지·도로 비탈면 등 취약지 통행 주의 당부

봄철 해빙기를 맞아 광주·전남 지역에 안전 경보가 켜졌다. 3일 광주·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해빙기 사고는 총 115건, 인명 피해는 116명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에서 사고가 집중됐다. 같은 기간 총 109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3년 45건, 2024년 29건, 2025년 35건이다.

인명 피해는 2023년 47명, 2024년 30명, 2025년 37명 등 총 114명으로 집계됐다. 사고 유형은 산악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2023년 43건(46%), 2024년

28건(30%), 2025년 30건(36%)이다. 이 밖에 수난사고와 붕괴·도파사고도 매년 발생했으며, 특히 2025년에는 붕괴·도파사고가 4건으로 늘었다. 전남은 같은 기간 총 6건의 해빙기 사고가 발생했다. 2023년 낙석·낙빙 2건(부산 1명), 2024년 지반 약화 사고 1건, 2025년 수난(낙사) 사고 3건 등이다. 인명 피해는 3년간 1명으로 파악됐다.

전국적으로도 해빙기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해빙기 사고는 319건으로, 7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사고 유형별로는 추대·옹벽 붕괴 등

지반 약화가 173건(54.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낙석·낙빙 등 산악사고 58건(18.2%), 얼음 깨짐 수난사고 46건(14.4%), 산사태 42건(13.2%)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89건이 발생해 4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집중됐다. 해빙기 사고는 낮과 밤의 큰 일교차로 얼었던 땅과 암반이 빠르게 녹으면서 지반이 느슨해지는 데서 비롯된다. 지표면 아래 얼음이 녹으면 빈 공간이 생기고, 이를 지탱하던 토사와 암반이 무너지면서 붕괴나 낙석으로 이어진다. 추대·옹벽, 도로 비탈면, 노후 건축

물 주변이 대표적인 위험 구간이다. 현재 광주에는 급경사지 186개소와 산사태 취약지 174개소 등 360개소가 해빙기 취약지로, 전남은 3627개소가 점검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광주·전남소방은 산행 시 절벽 아래나 바위 인접 구간을 피하고 지형 등산로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 관계자는 “공사장 주변과 균열이 보이는 옹벽 근처 접근도 자제해야 하며, 낙석 위험 안내 표지판이 있는 구간은 우회하는 것이 안전하다”면서 “균열이나 지반 침하가 보이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산구가 최근 지반 약화로 인한 붕괴·낙석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급경사지인 산월N1지구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산구